

영국의 사업자사전선택제 영향 및 시사점

Competitive Effects of Carrier Pre-selection in U.K.

김병운(B.W. Kim)

경쟁전략연구팀 선임연구원

OFTEL은 1998년 7월 유럽위원회(EC)의 수정상호접속지침(amended ICD, 97/33/EC)에 의거 유선망의 지배적사업자인 BT, 그리고 Kingston Communications사를 제공의무사업자로 결정하고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2000년 4월부터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유선시장 전화서비스에 대해 multi-basket 유형으로 사업자사전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수시영업(marketing) 방식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I. 서론

1998년 7월 영국의 통신규제기관인 OFTEL(현, Ofcom)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수정상호접속지침(amended ICD, 97/33/EC)에 의거 유선망의 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OFTEL은 당초 2000년 1월부터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BT와 Kingston의 네트워크 수용능력의 부족으로 국내전화 및 국제전화에 2000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Interim Carrier Pre-Selection: ICPS)를 도입하였으며 2000년 12월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Permanent Carrier Pre-Selection: PCPS)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모든 호(all calls)에 대해서 2000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였으며 2001년 12월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를 확대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영국의 사업자사전선택제는 서비스 별, 제도 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 배경, 주요 내용, 도입 영향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업자사전선택제 개요 및 도입배경

1. 사업자사전선택제 개요

이용자가 기존유선망사업자의 4-digit 접속코드를 다이얼하여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업자선택(carrier selection)이라 한다[1]. 이 시스템 하에서 auto-diallers와 같은 특수다이얼 장비(special dialling equipment)를 설치한 이용자는 다른 사업자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다이얼 할 때마다 4-digit 접속코드를 다이얼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접속을 영국에서는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ICPS), 맥내기반사업자사전선택(pre-mises-based CPS)이라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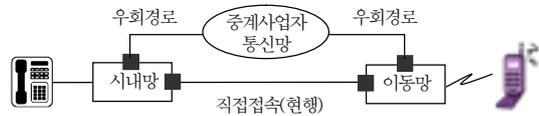
한편, 사업자사전선택(CPS)이란 이용자가 접속코드를 다이얼 할 필요 없이 다른 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영국에서는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PCPS), 또는 교환기 기반 사업자사전선택(switch-based CPS)으로 부르기도 한다[2].

이와 같은 사업자사전선택제는 편리성, 다양한 기능, 통화 용이성 증대, 통화요금의 저렴화 그리고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대체서비스를 이용하는 전화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증대시

켜 줄 수 있고 사전선택제로 인해 촉진되는 이전 또는 “천이(churn)”의 용이성은 사업자들에게 경쟁 압력을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켜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사업자사전선택제는 서비스의 특징, 바스켓 유형 등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도 있다. 이들의 주장은 장거리전화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사실상 multi-basket 서비스 제공이 존재할 수 있어 소비자선택권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으나, 시내전화, LM 통화의 경우에는 각 서비스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용자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선택권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자사전선택제보다 사업자선택제가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사업자사전선택제는 발신접속서비스 전달자 측면에서는 교환기 변경, 제어망과 설비시설의 조절 비용, 교환기 포트의 수 증대를 위한 비용, 정보 시스템의 도입 또는 수정, 그리고 과금이나 고객 서비스 목적으로 사업자간 데이터 교환 허용, 고객 기록의 유지, 천이과정의 관리, 직원 교육 및 사전선택제 조건에 맞는 절차의 개발 등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킨다. 사전선택사업자 측면에서는 고객의 선택을 기록하고 수정하기 위한 정보 서비스 개발 사전에 선택할 수 있는 호의 경로 지정을 위해 교환기상의 소프트웨어 변경, 고객의 선택을 기록하고 수정하기 위한 정보 서비스 개발, 발신 접속 서비스 전달자와 사전선택제의 조건 협상에 따른 비용유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측면에서는 일부 고객의 장비가 재프로그램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최종이용자에 대한 직접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규제기관도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관련비용을 발생시킨다[3].

이 제도가 유선전화에 도입될 경우 전화 이용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전화 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여 별도의 사업자 식별번호 없이 미리 선택한 사업자의 전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LM 시장 서비스기반 경쟁(service-based competition) 활성화 수단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사업자사전선택



(그림 1) LM CPS 개념도

제가 LM 시장의 서비스기반 경쟁의 활성화 수단으로 도입될 경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는 LM 통화시 중계사업자의 망으로 우회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배경

유럽위원회의 1997년 상호접속지침(Interconnection Directive 97/33/EC)은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의 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중전화망의 지배적사업자(Significant Market Power: SMP)들에게 반드시 사업자사전선택제 및 call-by-call override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발표된 1998년의 유럽위원회의 수정상호접속지침(EC Directive 98/61/EC the Amending Interconnection Directive)에서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사업자사전선택제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그리고 유럽위원회는 2000년 6월 말부터 Numbering Directive 98/61/EC의 시행위반에 대한 조치를 개시하였다[4].

이와 관련하여 1997년 12월 OFTEL은 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이래 1998년 8월 “Functional Specification of CPS”를 발표하고 사업자사전선택제 제공사업자인 BT와 Kingston Communications사에게 제공기반 구축을 요구하였다. OFTEL은 간접접속 제도 도입과 함께 동등접속(equal access)에 대한 검토를 NERA를 통하여 실시한 바 이 제도 도입은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도입하지 않았으며, 이때 거론된 주 내용이 사업자사전선택제이다[5]. 1998년 7월 OFTEL은 유럽집행위원회의 수정상호접속지침(Amended ICD, 97/33/EC)에 의거 고정망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OFTEL은 당초 2000년 1월부터 사업자사전선택제

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BT와 Kingston의 네트워크 수용능력의 부족으로 도입을 연기하기로 하고, 도입 계획을 제시하였다.

III. 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과 주요 내용

1. 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

가.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

OFTEL은 상호접속지침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BT와 Kingston의 네트워크가 사업자사전선택 설비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교환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 최소한 2년 이상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OFTEL은 1998년 10월 BT 교환기의 기술적 문제를 들어 유럽위원회에게 국내전화(national calls)와 국제전화(international calls)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모든 호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연기 요청을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1999년 12월에 3개월간 연기를 인정하고 2000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를 국내전화와 국제전화에 이용 가능하도록 요구하였고, 모든 호에 대해서는 2000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OFTEL은 Kingston에 대해서는 2000년 1월부터 auto-dialler를 이용한 사업자사전선택 제공의무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hull 시내 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이므로 소규모이고 auto-dialler의 설치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자사전선택제 제공연기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하였다[6].

나.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PCPS)는 영국에서 2단계로 도입되었다. 1단계는 사업자사전선택서비스 소비자들이 국제전화, 국내전화 그리고 두 서비스 모두 2000년 12월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

였다. 그리고 2단계로 2001년 12월부터 모든 호에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였다[2].

2. 사업자사전선택제의 주요내용

가. 사업자사전선택 제공의무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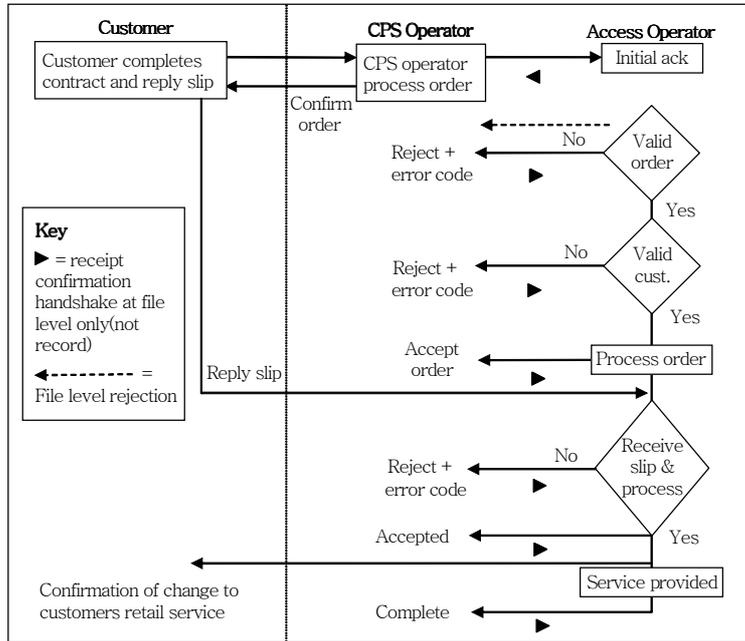
OFTEL은 1997년 12월 유럽위원회의 1997년 상호접속지침(Interconnection Directive 97/33/EC)에 따라 BT와 Kingston으로 하여금 사업자사전선택 제공의무사업자로 결정하고 있다. 제공의무사업자란 유럽위원회의 상호접속지침에서 정의된 공중전화망과 서비스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한다.

나. 사업자사전선택 제공의무 대상서비스

유럽위원회의 1997년 상호접속지침에서는 대상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국내전화와 국제전화뿐만 아니라 시내전화, LM 통화 등도 사업자사전선택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사전선택서비스는 사업자에게 상호접속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

다. 사업자사전선택 유형

사업자사전선택의 유형선정 근거로 OFTEL은 당초 시내전화, LM 통화, 국내전화, 국제전화 등 4가지 서비스에 대한 multi-basket 사업자사전선택제 적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전화와 국제전화는 국제사업자도 사업자사전선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multi-basket 사업자사전선택제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이 유형은 국내전화와 시내전화(LM 통화 포함)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시내전화와 LM 통화는 국내전화와 국제전화보다 수익성이 낮고 multi-basket 사업자사전선택제 적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편익을 상회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시장진입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타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그림 2) 영국의 사업자사전선택서비스 신청절차

단하여 국내전화 및 국제전화와 분리하여 사업자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업자사전선택제를 유형화하였다. 따라서 영국의 사업자사전선택제의 유형은 다음 4가지 options으로 설정되어 있다.

- ① option 1: 국제전화
- ② option 2: 국내전화
- ③ option 3: 국제전화, 국내전화
- ④ option 4: 모든 호[1]¹⁾

라. 사업자사전선택제 액세스 코드와 라우팅

사업자사전선택은 기본적으로 상호접속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OFTEL로부터 사업자사전선택 프리픽스 코드를 부여 받은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이용자가 사전선택한 호는 사업자간에 합의된 상호접속점(POI)에서 이용자의 사업자사전선택망으로 인

도되는 'near-end handover 방식'이다. 사업자사전선택 액세스 코드는 4-digit이며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 하에서는 실제로 다이얼 되지 않는다.

마. 사업자사전선택제 계약방식

영국에서는 사업자사전선택제 실시 이후 순차적으로 각 사업자가 수시영업(마케팅) 활동을 하는 속에서 자사를 지정하는 선택등록을 취하고 있다.²⁾ 이용자는 사업자사전선택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 사전선택서비스제공사업자(CPS operator)와 서면(written contract), 인터넷 그리고 전화로 계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법변경(slamming)의 방지를 위해 BT와 같은 접속제공사업자(access operator)에게 "a paper reply slip"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사전선택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신청부터 10일이 소요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과정에서 2002년 1월 현재, 불법변경의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

1) 여기에는 시내전화(local calls), 국내전화(national calls), 국제전화(international calls), LM 통화(calls to mobile phones), specially tariffed calls(freephone, local rate, national rate, premium rate), calls to personal numbers, calls to pagers 등이 포함됨

2) 이와 같은 등록방식은 EU 국가, 일본, 호주(LM 통화) 등과 동일한 방식임

고 있다[7]. 따라서 2002년 7월부터 “a paper reply slip” 제출을 중단하였다[8].

바. 과금주체

사업자사전선택에 대한 과금주체는 사업자사전선택 사업자이며, 사전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금주체는 발신사업자이다. 기본료의 경우 BT로부터 청구되며, 통화료는 사전선택사업자로부터 별도로 청구된다. 즉, 사전선택사업자가 BT와 같은 유선 사업자인 경우 소비자는 “one-bill”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사전선택사업자가 BT가 아닌 후발사업자로 사전 선택할 경우 소비자는 BT에게 기본료 청구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즉, 2003년 1월 현재 2개의 요금청구서(two-bills)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IV. 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의 영향

1. 시장점유율

가. 가입자회선 점유율

<표 1>은 영국의 유선사업자의 가입자회선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 전 1999/2000년 Q4분기 현재, BT와 후발사업자들의 가입자회선 점유율은 각각 83.1%, 16.9%를 점유하고 있다. 2000/2001년 Q1분기부터 국내전화 및 국제전화에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가 시행되는 2000/2001년 Q3분기 현재, BT와 후발사업자의 가입자회선 점유율은 각각 83.3%, 16.7%를 점유하고 있어 이들 서비스에 대한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은 가입자회선 점유율에 각각 0.2%로 매우 미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국내전화 및 국제전화의 서비스의 특성, 그리고 임시적사전선택제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1/2002년 Q3분기 상황을 보면, BT의 가입자회선 점유율은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 전 1999/2000년 Q4분기 대비 1.8% 후발사업자에게 대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내전화 및 LM 통화가 모든 호에 포함되어 시행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2002/2003년 Q4분기 현재, BT의 가입자회선 점유율은 1999/2000년 Q4분기 대비 1.7% 후발사업자에게 대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통화량 점유율

시장점유율은 사업자별 통화량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면 사업자사전선택제 시행 전 1999/2000년 Q4분기 현재, BT의 서비스별 통화량 점유율을 보면, 시내전화 73%, 국내전화 65%, 국제전화 42% 그리고 LM 통화 67%를 점유하고 있다.

2000/2001년 Q1분기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 시행부터 국내전화 및 국제전화에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가 시행된 2000/2001년 Q3분기 현재, BT의 통화량 점유율은 국내전화 52%, 국제전화 32%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 시행 전 1999/2000년 Q4분기 대비 국내전화 13%, 국제전화 10%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전화 및 국제전화에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 시행 1년 후가 되는 2001/2002 Q3분기 현재 BT의 통화량 점유율은 국내전화 49%, 국제전화 33%로 각각 3% 감소, 1%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내전화 및 LM 통화에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 시행 전 1999/2000년 Q4분기 현재, BT의 서비스별 통화량 점유율은 시내전화 73%, LM 통화 67%를 보이고 있다. 시내전화 및 LM 통화에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가 시행되는 2000/2001년 Q1분기부터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 시행시점인 2001/2002년 Q3분기 현재, BT의 서비스별 통화량 점유

<표 1> 가입자회선 점유율 (단위: %)

연도	분기	사업자 점유율	
		BT	후발사업자
1999/2000	Q4	83.1	16.9
2000/2001	Q3	83.3	16.7
2001/2002	Q3	81.3	18.7
2002/2003	Q3	81.4	18.6

<자료>: OFTEL(2003)[9]

<표 2> 사업자별 통화량 점유율

(단위: %)

서비스		시내전화		국내전화		국제전화		LM 통화	
연도	분기	BT	후발사업자	BT	후발사업자	BT	후발사업자	BT	후발사업자
1999/2000	Q4	73.0	27.0	65.0	35.0	42.0	58.0	67.0	33.0
2000/2001	Q3	73.0	27.0	52.0	48.0	32.0	68.0	66.0	34.0
2001/2002	Q3	72.0	28.0	49.0	51.0	33.0	67.0	64.0	36.0
2002/2003	Q3	73.0	27.0	51.0	49.0	32.0	68.0	62.0	38.0

<자료>: OFTEL(2003)[9]

율은 시내전화 72%, LM 통화 64%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99/2000년 Q4분기에 비해 BT의 통화량 점유율이 시내전화 1%, LM 통화 3% 대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02/2003년 Q3분기 현재, BT의 서비스별 통화량 점유율은 시내전화 73%, 국내전화 51%, 국제전화 32% 그리고 LM 통화 62%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1999/2000년 Q4분기에 비해 BT의 통화량 점유율이 시내전화는 불변이며, LM 통화는 5% 대체된 것이며, 시내전화 및 LM 통화에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가 도입된 2001/2002년 Q3분기 대비 시내전화 및 LM 통화량 점유율이 각각 1% 증가, 2% 감소된 것이다.

2. 사업자별 수익

가. 기본료 수익

사업자사전선택제 시행 전 1999/2000년 Q4분기 현재, BT와 후발사업자들의 기본료 수익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84.1%, 15.9%를 점유하고 있다. 사업자별 기본료 수익 증감률을 보면, 국내전화 및 국제전화에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가 시행되는 2000/2001년 Q3분기 현재, 전분기 대비 기본료 수익은 BT 0.7% 증가, 후발사업자 0.7%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시내전화 및 LM 통화에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가 시행되는 2001/2002년 Q3분기 현재, BT의 기본료 수익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2.5% 증가된 반면, 후발사업자의 기본료 수익 점유율은 2.5% 감소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2/2003년 Q3분기 현재, BT의 기본

<표 3> 기본료 수익 점유율

(단위: %)

연도	분기	사업자 점유율	
		BT	후발사업자
1999/2000	Q4	84.1	15.9
2000/2001	Q3	84.8	15.3
2001/2002	Q3	87.3	12.7
2002/2003	Q3	85.8	14.0

주) 기본료는 가입비 및 월 회선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임

료 수익 점유율은 85.8%를 점유하고 있다.

나. 통화량 수익

<표 4>는 사업자별 통화수익 증감률의 분기별 통합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국내전화 및 국제전화에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시점인 2000/2001년 Q3분기 현재, BT의 통화료 수익률은 1999/2000년 Q4분기 대비 국내전화의 경우 8.6% 감소, 국제전화의 경우 0.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후발사업자의 통화료 수익률은 국내전화의 경우 14.3% 증가, 국제전화의 경우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내전화 및 국제전화에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가 도입된 1년 후 2001/2002년 Q3분기 현재, BT의 통화료 수익률은 1999/2000년 Q4분기 대비 국내전화의 경우 2.2% 감소, 국제전화의 경우 6.6%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후발사업자의 통화료 수익률은 국내전화의 경우 4.1% 증가, 국제전화의 경우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02/2003년 Q3분기 현재, 국내전화의 경우 BT의 수익 감소율은 0.9%로 그 폭이 크게 약화되는 상황이며 후발사업자의 수익 증가율도 2001/2002년 이후 그 폭

<표 4> 사업자별 통화수익 증감률

(단위: %)

서비스		시내전화		국내전화		국제전화		LM 통화	
연도	분기	BT	후발사업자	BT	후발사업자	BT	후발사업자	BT	후발사업자
1999/2000	Q4	-4.7	15.3	-7.1	15.5	-6.0	7.2	-0.5	0.9
2000/2001	Q3	-0.3	1.0	-8.6	14.3	0.8	-1.1	-3.5	7.0
2001/2002	Q3	-1.4	3.5	-2.2	4.1	6.6	-6.6	-3.9	8.3
2002/2003	Q3	-3.6	9.4	-0.9	2.0	7.1	-7.2	-4.9	9.8

주) 1999/2000~2001/2002년은 3분기를 합한 것이며, 2002/2003년은 이전 6분기를 합산한 것이다.

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국제전화의 경우 BT의 수익 증가율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며 후발사업자의 수익 감소율은 크게 악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내전화 및 LM 통화에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 1년 후 2000/2001년 Q3분기 현재, BT의 통화료 수익률은 1999/2000년 Q4분기 대비 시내전화 및 LM 통화 각각 0.3%, 3.5% 감소하였고, 후발사업자들은 시내전화 1%, LM 통화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 시점인 2001/2002년 Q3분기 현재, BT의 통화료 수익률은 1999/2000년 Q4분기 대비 시내전화 및 LM 통화 각각 1.4%, 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후발사업자들의 통화료 수익률은 시내전화 및 LM 통화 각각 3.5%, 8.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 1년 후 2002/2003년 Q3분기 현재에는 BT의 통화료 수익률의 경우 1999/2000년 Q4분기 대비 시내전화 및 LM 통화 각각 3.6%, 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후발사업자들의 경우 시내전화 및 LM 통화 각각 9.4%, 9.8%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2001년 Q1분기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시점과 2001/2002년 Q4의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시점의 효과를 비교할 때 시내전화의 경우에는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 보다는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 이후 효과가 개선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LM 통화의 경우에는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의 후발사업자의 수익 증가율이 크게 개선된 이후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 이후 수익 증가율이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의 7% 증가보다 1.5% 개선되는 데 머무르고 있다.

3. 요금인하율

<표 5>는 영국 유선전화의 실질요금 추이를 보이고 있다[7]. 그리고 2000/2001년 유선전화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8% 감소하였다고 추정하였다. OFTEL(2003)은 2001/2002년 유선전화 평균 요금은 5.5% 감소하였으며, 이 중 주거용 3%, 기업용 8%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OFTEL(2001)의 요금인하는 유선전화에 대한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의 결과에 기인한 경쟁효과로 이해할 수 있고, OFTEL(2003)의 요금인하는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 시행에 따른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2000년 4월 사업자사전선택 도입 전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영국의 경우에도 11.6% 정도의 기본료가 인상되었다[10].

<표 5> 영국의 유선전화 요금지수 ((1996/1997)=100)

	통화료 ¹⁾	정액료	요금 총계
1996/1997	100	100	100
1997/1998	88	101	92
1998/1999	78	102	85
1999/2000	66	101	76
2000/2001	58	101	70

주) 1)은 인터넷 및 premium rate services 통화를 포함

<자료>: OFTEL(2003)[9]

V. 결론

영국의 경우 유럽위원회의 1997년 상호접속지침(Interconnection Directive 97/33/EC)에 따라 2000년부터 서비스별 및 제도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우선, 서비스측면에서 시내전화, LM 통화,

국내전화 그리고 국제전화로부터 임시적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여 국내전화 및 국제전화의 경우 약 9개월 동안 시행한 후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업자사전선택제로 간주하고 있는 즉, ACR(Automatic Carrier Routing)을 이용하지 않는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시내전화와 LM 통화의 경우에는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 약 2년 후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내전화 및 LM 통화의 낮은 수익성, 네트워크 수용능력 부족 그리고 장거리사업자들의 장거리수익 보전을 위한 시내전화 사업자와의 경쟁회피로 인해 시내전화 및 LM 통화에 대한 사업자들의 사전선택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OVUM은 언급하고 있다[4].

이 제도의 도입의 영향 분석결과, 가입자회선의 경우 BT로부터 후발사업자에게 대체되는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 점유율의 경우에는 국내전화 및 국제전화의 경우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보다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시내전화의 경우 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의 효과는 불변이었고, LM 통화의 경우 국내전화, 국제전화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의 서비스 옵션, 빌링제도, 서비스 등록 방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BT의 기본료 수익은 2000년 4월 사업자사전선택과 동시에 도입된 기본료 인상의 결과로 인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화료 수익의 경우에는 BT의 통화 수익률이 국내전화 및 국제전화 부문에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고, 후발사업자들은 악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였다. 시내전화 및 LM 통화 시장에서는 후발사업자들의 수익 증가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시내전화의 경우 후발사업자들은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수익률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LM 통화 시장에서는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가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보다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Joe Z. Cheng, Shih-Chi Chang, Ko-Tsung Chu, Hsiao-Cheng Yu들은 영국의 사업자사전선택제는 국내전

화 및 국제전화 부문에서는 경쟁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시내전화 및 LM 통화 부문에서는 그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11].

영국의 사업자사전선택제를 종합해 볼 때, 1998년 사업자사전선택제(CS), 2000년 4월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ICPS), 2000년 12월 국제전화 및 국제전화 항구적사업자사전선택제(PCPS), 2001년 12월 시내전화 및 LM 통화 사업자사전선택제(PCPS)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둘째, 2000년 4월 임시적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과 동시에 기본료 11.6% 인상이 이루어졌다. 셋째, 시내전화 및 LM 통화에 대한 국내전화, 국제전화 서비스를 분리하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없도록 옵션을 설정하여 사전선택사업자를 제한하고 있다.

참고 문헌

- [1] OFTEL, Consultation on Proposed Inclusion of Directory Enquiries within the Carrier Pre-Selection 'All Calls' Option, 11 Dec. 2001, p.2.
- [2] OFTEL Draft Determination on Costs and Charges for Permanent Carrier Pre-Selection, 7 Dec. 2000, pp.6-7.
- [3] 김병운, "일본의 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과 경쟁효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동향분석 통권 81호, 제 18권 제 3호, 2003. 6., pp.67-74.
- [4] Ovum, Service Subject to Regulation, 12 Nov. 2002.
- [5] OFTEL, Carrier Pre-Selection in the UK: Consultative Document, 1998. 7.
- [6] OFTEL, Implementation of Carrier Pre-Selection in the UK, 2, 1999.
- [7] OFTEL, The UK Telecommunications Industry: Market Information 2000/01, Dec. 2001, pp.7-26.
- [8] OFTEL, OFTEL Annual Report 2002, 2002, pp.28-29.
- [9] OFTEL, The UK Telecommunications Industry: Market Information 2001/02, Mar. 2003, p.7.
- [10] EU, Sixth, Seventh Report from the Commis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Package, 2001.
- [11] Joe Z. Cheng, Shih-Chi Chang, Ko-Tsung Chu, and Hsiao-Cheng Yu, "Stimulating Local Competition: Perspectives and Alternatives of Global Telecommunications Deregulation," *Proceedings of PICMET '03*, 20-24 July 2003.